

은혜

해도 뜨지 않은 새벽이었지만 녹진한 공기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모터가 곧 터질 것 같은 소리를 내는 공업용 선풍기 하나에 의지한 채 사람들은 간간히 봉고가 들어올 때 말곤 절전모드에 들어간 것 마냥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마주치지 못하는 시선들 속에서 시간은 오늘도 아주 무겁게 흘러갔다.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이 되자 인력사무소에 사람들은 거의 다 빠져나갔지만 은혜는 오늘도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다. 경충하게 큰 키와 검게 칩착된 팔뚝과 목에서 그녀가 경력 있는 육체노동자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지만, 강화시술을 받은 남성들 사이에서 내추럴인 그녀의 검게 탄 왼팔은 그녀를 더욱 왜소해보이게 만들 뿐이었다. 사무소에 그녀와 소장밖에 남지 않게 되었을 때 그녀는 불평을 시작했다. 일머리도 없는 애새끼들 데려다가 무슨 일이 되겠느냐고 역정 내는 은혜의 모습을 소장은 익숙하다는 듯 무시했다. 오늘은 공쳤다고 생각하고 은혜가 일어나려고 하자 소장이 그녀를 멈춰 세웠다. 김씨, 신호수 땀뺑이라도 할래요? 잠깐 멈췄지만 그녀는 자신의 기계팔을 쫓그려거리다 됐다고 말하며 사무실을 나섰다. 이 기계팔이면 성인 남성 한 명 정도는 거뜬히 들어 올릴 수 있다고 자랑하던 그녀였기 때문에 신호수라는 말에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 뻔했다.

비록 라면이더라도 아침밥도 챙겨먹고 나왔는데 그대로 집에 갈 순 없었다. 아직 셔터도 열지 않은 당구장 앞을 한참 서성거리자 한 사내가 나와 그녀를 들여보내주었다. 불 꺼진 홀을 지나 사무실을 건너 철문을 열자 줄지어진 슬롯머신과 화투판에 모여 앉은 아줌마들이 보였다. 팔 한 쪽이 없는 그녀가 저 판에 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머신 앞에 앉아 레버를 당기기 시작했다.

점심시간도 되기 전에 그녀는 백만 원도 넘는 돈을 잃었다. 오늘따라 잘 안 붙네, 로 시작해서 자리를 몇 번 옮겼고, 방금 전까지 그녀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돈을 따가는 사람을 봤고, 웬지 다음번엔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좁아진 시야가 돌아오자 어느새 백만 원을 넘긴 걸 알아챘다. 그녀는 갑자기 머신을 발로 차며 일어났다. 날카로운 욕설소리에 모두가 그녀를 쳐다봤다. 말단처럼 보이는 탈색머리를 한 조선족 사내가 그녀를 말리러 왔지만 그녀는 이거 조작한 거 다 안다며 사장 불러오라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잠시 후 등장한 정장을 입은 사내는 실망을 드러 죄송하다고 말했다. 굵히는 태도에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여기만 왔는데 이러기냐며, 내가 호구로 보이냐며 그의 면전에 대고 쏘아붙였다. 죄송하지

만, 그가 말했다. 저희는 확률 조작은 하지 않습니다.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가져오게 시켜 슬롯머신에 연결시켰다. 태블릿 속 컴파일러에 복잡한 외계어가 쏟아져 나왔다. 태블릿을 쥐어주기에 들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 화면을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다. 끓어오르는 화에 손이 파르르 떨릴 정도였지만 문제점을 발견하면 바로 말하라는 말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실례하지만 많이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사장은 그녀에게 오만 원 한 장을 건넸다. 나가서 시원한 거라도 한 잔 하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엉거주춤하게 지폐를 받아들고서 떠밀리듯 건물을 빠져나왔다. 그녀가 나가자 그 조선족 사내가 사장에게 저 여자가 누구기에 이렇게 잘 대해주느냐고 물었다. 사장은 원래 못 배우고 읽을 것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을 벌이지 모르니 잘 구슬려 보내야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떠밀려나온 그녀는 어두운 건물 앞에서 손으로 햇볕을 가렸다. 아스팔트가 끓어 신발 밑창에 묻어나올 것 같은 한낮이었다.

물론 은혜가 있을 게 없는 건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못 배운 건 아니었다. 한 뎨 그녀도 최소한 보통이상은 간다고 할 수 있었다. 어릴 적 유치원에서 달달 외우게 시킨 영어 노래를 듣고 그녀의 부모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노후자금을 꺼서 학원을 보낸 덕분에 학교를 다니는 내내 그녀의 성적은 1등급과 2등급 언저리를 오르내렸다. 물론 그것이 순전히 학원 때문은 아니었다. 다른 아이들이 외우는 영어 노래를 외우지 못하는 것이 분해 눈물을 흘리며 빠득빠득 외웠고, 노트필기를 빌려달라는 친구에게 중요한 부분을 빼고 빌려주는 등 그녀 나름의 각고의 노력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여하튼 20살이 됐고, 서울에 그저 그런 학교에 그저 그런 학과를 갔으며 모두가 그렇듯 졸업할 때쯤 경영학과를 복수전공했고 졸업 후엔 반 년쯤 취업준비를 빙자하여 놀다가 동종업계에선 유망하다지만 보통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IT회사에서 인사·회계·영업·마케팅을 모두 담당하는 직원이 되었다. 회사를 일 년 정도 다니면서 그녀는 여기서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때문에 그녀는 일과 중이면 3초에 한 번씩 생각했다. 때려치울까? 하지만 굳이 그녀가 때려치울 필요는 없었다. 여섯 사람이 밤을 새우며 잔업해야 했던 일을 혼자서 해결하는 인공지능 관리자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집집마다 넘쳐나는 취준생들 중 굳이 그녀가 뽑힌 것도 운이 좋았다기 보다는 인공지능으로부터의 엑소더스를 눈치 채지 못하고 뒤쳐진 것뿐이었다. 과학기술이 인간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고는 들었지만 그것이 해방이 아니라 추방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게 그녀는 제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다. 여름이면 섭씨 41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는 날씨였지만 에어컨도 켜지 못했다. 어떤 음식이건 반나절을 채 가지 못하고 쉬어버렸다. 밥을 해먹을 힘도 남아있지 않던 그녀가 부엌을 뒤지다가 발견한 건 바나나였다. 마지막 힘을 짜내며 바나나 껍질을 벗기던 그녀는 큰 며칠 중 가장 큰 소리를 내며 말했다. 와, 대박.

탄수화물 함량 25%의 비타민A와 C가 풍부하며 100g당 92kcal를 갖는 이 열대성 식물을 보며 그녀는 오전마다 속독해야했던 각종 경제연구소들의 보고서들을 떠올렸다. 그건 지난 수십 년간 이어진 온난화가 중남미의 여름을 열대작물마저 익어버리는 열화지옥으로 만들었고, 어찌 열매가 열린다고 해도 그 지옥 속에서 일할 인부가 없어 5년 내에 바나나 사업은 완전히 개편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들이 예측한 위도 30도 부근의 고온다습한 지역은 미 동부, 중국 대륙, 그리고 한국이 있었다. 그녀가 둘러본 몇 해쯤 쉬고 있던 땅들의 주인은 텃밭 한 번 일궈본 적 없이 유산으로 상속받은 도시의 중년들이었다. 그들은 그녀의 가녀린 팔뚝을 보며 농사는 아무나 짓는 게 아니라고 가르치려들었다. 하지만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을 속이는 건 쥐꼬리만한 지식으로도 충분한 법이다. 그녀는 영업을 하며 얻은 비위와 마케팅을 하며 얻은 허풍으로 그들을 설득했다. 그들과 은혜의 차이는 아주 조그마한 것이었다. 그건 간절함의 유무였을 뿐이다. 당연하게도, 국가의 지원이 쏟아졌다. 청년 귀농, 심지어 여성이라는 점은 그녀가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완주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자 든든한 무기가 되었다. 처음 1, 2년간 기반을 닦으며 여러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모두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들이었다. 맥주와 각테일, 그리고 파스타보다는 막걸리와 홍어삼합, 그리고 깡소주에 익숙해지자 그녀는 성공적 귀농 사례로 지역 신문의 인터뷰까지 실리곤 했다. 어느새 결혼도 했다. 이런저런 일들로 군청에 들릴 때마다 생글생글 웃는 얼굴과 꼼꼼한 성격이 마음에 들어 밥이나 먹자한 약속이 술이 되고 어느새 덜컥, 책임지라고 말하자 결혼까지 해버리는 요즘 시대에 없는 무농약 같은 남자였다. 그 아이는 세상 빛을 본 후 얼마 안 되어 마음속에 품었지만 그들에겐 충분히 다음을 기약할 여유가 있었다. 더 이상 내일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을 무렵 그녀는 서른 후반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그녀는 입버릇처럼 노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따위의 그녀가 대학 시절 가장 싫어하는 말들을 뇌까리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운이 좋았다는 말은 믿지 않았다. 처음 농사를 시작할 무렵 부모의 마지막 노후자금과 그들의 신용이 담보로 잡히면서 시작한 일이긴 했지만 모든 위기는 그녀의 재능과 노력으로 극복되었다고 그녀는 믿었다.

전염병이 퍼졌다. 전염성이 매우 높고 사망률이 100%에 달하는 전염병이었

다. 그녀는 회사에서 찢린 그해 여름처럼 천장을 보며 누웠다. 달라진 점엔 에어컨은 틀 수 있다는 점 정도였다. 만약 사람이 걸리는 전염병이라면 이렇게 낙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바나나에 퍼지는 병이었다. 더 크고 더 맛있는 바나나를 먹기 위해 단순화된 유전자풀은 모두가 같은 약점을 공유하는 셈이었다. 흙과 그 속의 습기를 통해 옮겨 다니는 곰팡이들을 잡을 방법은 도저히 없었다. 그나마 아직 감염되지 않은 바나나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를 모두 불태워버리면 3할 정도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빨리 허가를 받아오라고 시킨 후 기다리는 중이었다. 남편이 늦자 그녀는 급한 마음에 먼저 불을 질렀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남편은 다신 돌아오지 못했다. 그는 민원 처리가 늦어져 급한 마음에 발을 가로지르는 셋길을 타고 달려오다가 불길 속에서 죽었다. 그녀는 그를 발 어딘가에 묻었지만 다시 찾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그의 장례식이 끝나고 난 후, 한국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이 보이는 평야라고 자랑하던 그곳은 단 한 그루의 바나나 나무도 남아있지 않는 허허벌판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를 묻어주고서 집에 돌아온 그녀는 약 60시간동안 눈을 뜨지 못했다. 처음엔 장례를 치른 후 긴장이 풀리며 찾아온 피로 때문이었고, 그 다음은 그를 묻어주다가 베인 원인 모를 상처 때문이었다. 24시간이 넘도록 움직이지 않는 그녀를 본 사물인터넷은 긴급 상황을 알렸고 그녀가 눈을 뜬 건 그로부터 36시간이 더 지난 병실에서였다. 정신이 들자 오른팔에 통증이 밀려왔다. 의사는 살아남은 게 기적이라고 말했다. 오른팔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살아남은 값에 비하면 싸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십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다. 떠난 지 십 년도 더 지난 서울은 더 이상 변할 강산은 남아있지 않았지만 빌딩 숲들은 완전히 개편되어 있었다.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오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상업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완전히 무용하다는 것이 밝혀지고서 외려 자동차들은 땅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때문에 차도가 있던 자리에도 모두 빌딩들이 들어섰다. 뽁뽁하게 들어찬 직사각형의 빌딩들은 웬지 그녀의 서울 입성을 막는 성곽처럼 보였다. 저곳에 그녀의 자리가 있을 리가 만무했다. 그녀는 결혼한 뒤 끊었던 담배를 꺼내 물었다. 반을 태우기도 전에 경찰이 달려왔다. 이제 서울 모든 거리에서는 금연이었다. 완주에서 그녀를 든든하게 돕던 경찰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아니, 자판기 좀 찢다고 벌금 내라는 게 말이 돼? 현장에서 검거된 은혜는 경찰이 눈앞에 있음에도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말했다. 힘줄이 툭툭 불거진 두꺼운 팔뚝을 가진 경찰은 그녀의 괴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말

을 이어나갈 뿐이었다. 올해부터 개정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의해 휴머노이드 로봇, 길 안내 홀로그램, 자판기까지 폭력적 행위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낮낮이에 변화가 없는 그의 말투는 이상하리만큼 창백한 그의 피부만큼이나 차가웠다. 이 주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염병…….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태블릿을 두드리던 경찰이 고개를 들자 그녀는 입을 틀어막았다. 지갑 사정이 그녀를 빠르게 학습시킨 것이었다. 대신 그녀는 그 경찰을 노려봤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의 목덜미를 노려봤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경찰복 칼라 밑에 언뜻언뜻 뻑뻑한 바코드가 비쳤다. 아틀라스사의 4세대 휴머노이드였다. 좇같은 것들. 기계들이 합심해서 인간을 억압하고 있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한국 아줌마가 아무리 강하다 한들, 저 덩치한테 스티치만 해도 보통 사람은 최소한 기절할 게 뻔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오른 팔꿈치 아래로 기계가 돼버린 자신의 팔을 쳐다봤다. 녹슨 구리스가 새어나와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지만 어쩐지 그 냄새가 자신을 안심시켰다.

고시원의 좁은 복도를 지나가자 허리가 굽은 사내가 코를 막으며 지나갔다. 병신 새끼가…….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목소리를 들었는지 사내가 뒤돌아봤지만 키가 큰 그녀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잠깐 서로를 노려보다가 사내가 먼저 돌아갔다. 그녀는 이겼다고 생각했겠지만 잃을 게 많은 사람이 물러나는 싸움을 이겨버렸으니 그녀의 판정패라고 보는 게 맞겠다. 방에 들어간 은혜는 자신의 매트리스를 들어냈다. 비닐에 펼쳐진 지폐를 모두 모아 세어보니 정확히 1118만원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그녀의 신체접촉을 감지하자 빈 카드는 명함으로 변했다. (주)아틀라스. 극동태평양지부. 직급과 이름이 적혀있을 자리가 비어있는 명함은 제 스스로 구린 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듯 했다.

*

2009년, 나사에서 달에 물이 있는지를 실험하기 위해 카베우스 크레이터에 로켓을 충돌시킨 이후, 그 근방에서 달 탐사 로봇이 종종 실종되곤 했다. 그로부터 반세기도 넘게 지나기까지도 당시 충격으로 생긴 균열 속에 빠져 고장이 났을 것이라고만 생각했지 그 균열 속을 탐사해볼 생각은 누구도 하지 않았다. 우주 개발의 3세대 후속주자인 아틀라스 사는 기존 회사들이 시도하지 않던 참신한 방법론으로 늦은 시작을 극복하고자 했는데, 크레이터 탐사도 그 중 하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 균열을 타고 들어가자 거대한 용암 동굴이 있다는 걸 밝혀냈고, 비교적 안정된 일교차, 비교적 많은 수소

분자, 비교적 차단되는 우주 방사선 등이 만약 달에 테라포밍을 시도한다면 이곳이 최적의 장소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사내 극비 사항에 부쳐 우주 거주 사업을 준비했으나 모든 준비가 끝이 난 뒤 가장 큰 문제가 생겼다. 이 복귀 가능성이 불투명한 사업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다.

왜, 너네 로봇 잘 만들잖아. 은혜가 어두운 술집에서도 선글라스를 끼는 아주 수상한 여자에게 물었다. 맞습니다. 원래는 4.5세대 휴머노이드 AE 5기가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이사진 회의에서 결국 인간이 가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일부 주장 때문에 인간이 한 명은 가야 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라고? 아무리 돈 따서 기분 좋은 날에 술 좀 사줬답시고 뒤지러 가라는 말에 감사합니다, 할 것 같아? 은혜의 말이 끝나자 수상한 여자는 비서인지 경호원인지 모를 덩치의 남자가 건네주는 파일을 받아 읽기 시작했다. 김은혜, 2015년생, 한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졸업, 완주군에서 바나나 농사를 짓다 전염병으로 파산. 빛 독촉에 쫓겨 다니다 부는 사망 모는 연락 두절. 현재 인천 부평구의 고시원에 거주중. 계좌 압류 이후 금융서비스 이용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가내에 보관중인 것으로 추정. 추정금은 약 천오백만 원 안팎. 더 읽을까요? 이 경우 어떻게 알았느냐 따위의 질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은혜는 알고 있었다. 뭘 원하는 건데? 술잔을 쥐고 어깨를 펴고 등을 기댔지만 이미 목소리는 움츠러들어 있었다. 이해가 빠르시네요. 이것만 생각하세요. 당신을 전설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달에서 농업의 어머니, 가이아가 될 겁니다. 딱 3년간 파일럿 기간이 끝나면, 첫 세대 이주민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그 사람들이 타고 온 비행선을 타고 귀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전 세계 스타 탄생이죠. 좋아, 근데 실패하면? 갔는데 살 곳이 아니거나 로봇들이 미쳐버리거나 하면 어떡하냐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리죠. 현재 공식적으로 페르세포네호에 인간은 타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주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그때부터 그 우주선엔 인간이 한 명 타 있던 걸로 바뀔 겁니다. 은혜는 알겠다고, 생각할 시간을 며칠만이라도 주면 안 되겠냐고 물었다. 그 여자는 은혜에게 처음 술을 살 때처럼 예의바른 웃음을 지으며 명함을 건네주었다. 빠른 시일 내에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은혜는 능청스럽게 문을 막아선 인간인지 로봇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을 보며 이 제안이 권유가 아니라는 걸 빠르게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나야? 오늘 슬롯머신에서 큰돈을 뺏다고 하셨죠? 그건 실력이 좋아서인가요, 운이 좋아서인가요? 당연히 운이 좋았던 거지. 그럼 당신은 오늘 정말 운이 좋으신 거네요. 돈도 따고 저희도 만났으니까.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자 곧 검은 세단이 고시원 앞에 멈춰 섰다. 충청북도의 처음 듣는 동네에 있는 우주센터까지 가는 동안 조수석에 앉은 수상한 여자는 페르세포네호가 출발하기까지 남은 한 달 동안 그녀가 주력해야 할 것은 3년간 함께하게 될 휴머노이드인 AF 1호부터 4호까지와 유대를 맺는 것이라고 했다. 아니 잠깐만, 기계 새끼들하고 뭐? 친구나 먹으라고? 아, 실례했네요. 그 기계 새끼들도 당신과 친구는 하기 싫을 것 같은데. 씨발, 너 다시 말해봐. 그러자 그 여자는 조수석에 올린 은혜의 왼손을 꺾으며 말했다. 너도 입조심해. 우리도 너 같은 인간쓰레기를 사람으로 보진 않으니깐. 손을 풀어주자 겨우 자리에 앉은 은혜는 그 이후로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짧은 시간에 남의 목덜미를 잘 살피고는 속으로 욕을 뇌까리며 분을 삭이는 방법 또한 배우게 되었다. 어쩌면 가장 인간다운 반응을 배우며 목적지에 도착했다. 세계를 떠받들고 있는 아틀라스 동상이 그들을 반겼다.

강화 기술은 평등한 세상을 만듭니다. 아틀라스 GE 헬스케어. 줄기세포 배양을 통해 근골격계질환 비수술 치료법에서 두각을 보인 것으로 시작해 기왕 바꿀 거 더 좋은 걸로, 라는 모토를 걸고 뛰어든 강화 및 이식 사업이 당시 정부지원사업을 등에 업고 대박이 났다고 그녀가 회사를 다니던 시절 들었던 기억이 났다. 여자의 뒤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의 사업을 연도별로 정리한 마네킹들이 서있었다. 4족 로봇에서 첫 2족 보행 로봇인 1세대 AE와 더 이상 외적으로 인간과 구분이 불가능한 3세대 AE, 목소리와 걸음걸이와 같은 것이 구분 불가능한 4세대, 그리고 아틀라스의 서버와 연결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사고 확장이 가능해진 4.5세대까지 전시되어 있었다. 각 AE들과 강화기술을 받은 신체에 대한 마네킹들은 마치 고전주의 조각들처럼 완벽해보였다. 그 완벽함은 아틀라스의 모든 직원들에게서도 찾을 수 있었다. 과학의 최첨단에 선 연구소의 연구원들이라기엔 큰 키에 뚜렷한 안와상용기, 경찰 로봇들에게서나 보던 흥기와 같은 삼두근을 가지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만나 담당자라며 악수를 건네는 남자의 손은 무시무시한 덩치에 비해 물 한 번 묻혀본 적 없을 정도로 고왔다. 뒤돌아 엘리베이터로 안내하는 그의 목은 깨끗했다.

한 달간 숙식하며 은혜는 속성으로 중력을 견디는 훈련을 받았고, AF들과 끝없는 정신 감정을 받았다. 제 이름은 김은혜입니다. AF들과 달에서 힘을 합쳐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6시간마다 같은 문장을 반복하며 목소리와 떨림에 담긴 진의를 알아채는 테스트에서 그녀는 점점 안정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건 이 로봇들도 달로 내몰리게 된 것이 두려워

틀린 대답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이들은 도박에서 승리한 것은 당신의 실력입니까, 행운입니까, 하고 묻는 질문에 실력이라고 대답하거나, 권유하다와 강제하다를 혼동하는 등 말이 안 되는 실수들을 했다. 그때마다 그들과 덩치가 똑같은 연구원들이 들어와 그들을 호되게 혼내거나 고쳐지지 되지 않는 경우 전원을 꺼버린 후 설정값을 바꾸곤 했다. 그들은 로봇일 뿐이고 전원을 켜면 다시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눈이 풀리며 고개가 폭 쓰러지는 전원이 꺼지는 모습은 왜인지 섬뜩했다. 그 모습을 본 이후로 그녀는 연구원들이 당신은 뭐……, 하며 자신을 무시할 때도, 자기와 떨어져 앉아 식사를 하던 한 무리의 연구원들이 자신을 병신년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을 때도 화를 내지 못했다. 그럴 때면 그녀는 AF들을 찾아가 여러분은 훈련이 잘 돼가고 있냐며 시답잖은 이야기를 건넸고, 자신이 어린 시절 로봇이란 뼈격거리며 움직이는 것이었다며 로봇 동작을 따라하며 농담을 던지곤 했다.

발사 시퀀스가 진행되었지만 우주선이 대기권을 통과하는 중력을 견디는 것 외에 우주선 속에서 그녀가 할 일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했다. 그녀는 목 뒤로 바코드가 드러난 사내들이 알 수 없는 말들을 주고받는 걸 불안하지 않은 척 지켜보는 것이 유일한 할 일이었다. 지구 중력을 벗어나 몸이 뚱뚱 뜨기 시작했지만 종자와 식량, 장비들을 가득 실은 우주선에서 우주유영을 즐길 공간 같은 건 없었다. 벨트를 풀고 제 자리에서 잠깐 떠보는 것이 전부였다. 나머지 네 로봇들은 각자 임무수행에 바쁜 것처럼 보였다. 은혜는 자신의 깨끗해진 기계팔을 내려다봤다. 왼팔과 완전히 똑같은 기계팔을 만들어주겠다고 말했지만 왜인지 거절했던 그녀였다. 작게 난 유리창 밖으로 지구가 보였다. 다시 돌아가게 되면 엄마를 찾고 싶다고 생각했다. 오, 이런. 그녀가 작게 중얼거리더니 다시 벨트를 매고 체크리스트를 꺼냈다. 종자와 식량, 텐트 장비와 산소 제작기에 이상이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까지 마치고 난 뒤 마지막 체크리스트엔 균형센서를 점검하는 칸이 있었다.

균형센서 점검이 무엇인지 확인해주길 바람. 그녀의 우주센터와의 첫 교신이었다. 그건 달에 착륙 후 진행되어야 할 시퀀스임. 기존 계획은 AE들 간 상호작용이었지만 로봇 간 로봇 업데이트 금지 법안이 통과되어 본인이 해줘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은혜는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느냐고 따져물으려했지만 이들에게 자신은 로봇보다 못한 존재라는 걸 준비하는 한 달 동안 몸으로 느껴왔기에 말을 아꼈다. 단지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었다. 답이 잠시 지연되다가 도착했다. 매뉴얼을 참고하기 바람. 그녀는 그들의 반응이 예상되어서 웃었다. 매뉴얼은 별다른 설명 없이 명령어만 가득했다. 코딩

할 줄 모름. 그녀가 짧게 교신을 보내자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답이 왔다. 처음엔 그냥 물음표 하나만 찍혀서 온 후, 문장이 도착했다. 농담하지 말 것.

*

달의 바닷속은 어두워 균열의 생김새가 잘 식별되지 않았지만 AF들은 그 사이사이를 잘 피해 용암동굴 내부에 도착했다. 달 기지라고 하면 대기 없는 하늘의 차갑도록 깨끗한 하늘과 쏟아지는 별들, 그리고 푸른 구슬 같은 지구를 볼 수 있는 풍경을 기대하겠지만 용암 동굴 내부는 아주 거대한 짐승 내장 속에 그 짐승의 목구멍을 타고 아주 얇은 빛 한 줄기가 내려오는 모습과 같았다. 페르세포네호 달 착륙 완료. 교신을 보내는 것을 마지막으로 착륙 시퀀스가 끝나고 버클을 다섯 명이 모두 풀었지만 일어난 건 한 사람뿐이었다. AF들은 모두 제자리에 고꾸라졌다. 컷속의 균형기관을 복제하는 것만큼은 불가능하여 지구 중력에 맞추어 중심을 잡게 하는 식으로 서있는 로봇이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물어가며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세 AF는 모두 일어났지만 한 AF는 그러지 못했다. 단순한 실수였다. 적으라는 글자를 잘못 적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미 바꾼 코드로 컴파일 예러가 뜨자 AF 1호는 그대로 멈추고는 꺼져버렸다. 일어나자마자 베이스캠프를 구축하기 시작한 2-4호는 쓰러진 1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순식간에 텐트를 세운 그들은 짐을 옮기기 시작했다. 은혜는 1호도 좀 데려가자고 말했다. 그들은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명령하신다면 하겠지만 그 이유를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4.5세대 모델다운 반응이었다. 뜨악한 기분을 설명할 방법을 찾지 못하여 언젠가 쓸모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로 그들에게 설명했다. 바깥은 영하 200도라는 가늠도 되지 않는 곳이었다. 어차피 우주복도 입지 않고 짐을 옮기던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을까? 1호를 그녀의 방에 옮기는 그들을 보며 그건 아니길 바랐다.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르는 기록을 남긴다. 이 기록을 보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걸 안다. 사람 외에 다른 생명체에게 남기는 기록이다.

달의 테라포밍은 꽤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다. 식량이 필요치 않은 3명의 노동력은 달에서의 생활을 풍족하게 만들어 주었다. 지구에서의 직접적 지원 없이 1년 6개월을 자급자족했고, 앞으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혼자서 1년 이상을 버틸 수 있는 식량을 축적했다. 하지만 문제는 늘 걱정이 없다

생각했을 때 쯤 일어나기 마련인지, 일이 발생했다. 싸움이 일어났다. AF들은 음식을 먹진 않았지만 전기충전이 필요했는데, 그것 때문에 일어난 싸움이였다. 우주선 내의 계급 체계를 위해 각 호간 능력치 설정을 다르게 해둔 것을 이용하여 가장 강한 2호가 나머지 둘에게 할당된 충전량을 빼앗아 스스로를 과충전하기 시작했다. 나머지 3호와 4호는 날이 갈수록 힘이 빠져가는 것이 보였다. 2호를 말리려 시도했지만 그가 내 말을 듣는 눈빛이 날 무시하던 연구원들의 눈빛과 같아서 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어느 날 둔탁한 파열음에 깨어나 보니 목이 달아나고 완전히 머리통이 뭉개져 바닥에 쓰러진 3호와 4호, 그리고 머리가죽이 벗겨지고 배선이 드러난 2호가 보였다. 놀란 내가 소리를 지르자 2호는 날 보더니 말했다. 너도 켜지? 2호는 방으로 도망치는 나를 쫓아왔다. 나는 내 기계팔로 있는 힘껏 쳤지만 구세대 팔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나를 한 손으로 들더니 집어던졌고, 나는 캐비닛에 부딪혀 떨어졌다. 그 충격으로 1호가 캐비닛에서 흘러나왔다. 2호가 다가와 내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의식이 풀려가기 시작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니 내 옆엔 쓰러진 2호와 정신이 돌아온 1호가 있었다. 1호는 전원은 돌아왔지만 고차원적인 사고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묻는 말에 예, 아니오 대답만 할 뿐 어떤 일도 시키지 못했다. 아무래도 인간을 해치면 안 된다는 등의 가장 기초적인 프로그래밍은 고차원적인 사고와는 다른 방식으로 저장되어있던 게 아닌가, 추측할 뿐이다. 사실 그 대답을 듣기 위해 지구에 몇 번이고 교신을 시도했지만 불가능했다. 로봇이 미쳐버리면 날 버리겠다고 그들이 말하긴 했지만 난 그것을 믿지 않는다. 사실이란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르니까. 내 추측이지만 4.5세대 AE들의 새 운영체제에 생긴 문제라면 지구에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전 지구적 혼란을 만들어 인류 종이 위협에 빠졌을 경우를 상상 가능하다. 나는 예전에 바나나 농사를 지었는데, 한 바나나가 전염병에 걸리자 모든 바나나가 순식간에 죽어버렸다. 아틀라스사의 운영체제에 문제가 생기면 그들의 인공신체를 이식받은 사람들과 AE들이 모두 공멸하는 건 순식간이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 지구에 아틀라스사의 서비스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

AF들이 싸우며 달 기지의 생명유지장치를 망가뜨렸다. 이제 남은 산소는 약 3일치. 어떤 영화를 보면 산소도 만들고 물도 만들어 살아가던데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아무래도 돌아갈 지구가 더 이상 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저 내 옆에 있는 아기 같은 1호와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 2호를 막은 이후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지만 말동무로는 충분하다. 1호도 문제가 없었다면 날 공격했을 것이라는 걸 안다. 이 녀석이 날 지켜준 건 정말 운이 좋

왔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운이 좋았다. 달에 오게 된 것도. 여기까지 살아 온 것도. 때문에 여기서 마친다. 이를 듣는 지적 생명체는 인간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란다.

철컹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의 실수인지 녹음은 끊이지 않았다. 이야기는 이어진다. 친구야, 내가 서른 중반에 애를 낳았어. 그런데 아이가 외눈증이었지. 태어나서 제대로 한 번 울어보지도 못하고 죽었어. 사람들은 뭐 그런 걸 낳았냐고도 했고 왜 진작 알아보지 않았냐고 나한테 물었지.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아이였고, 그 친구는 그저 운이 안 좋았을 뿐인데 말이야. 1호는 문장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은혜의 목소리의 떨림을 들곤, 참 슬픈 일이네요, 라는 위로를 전한다. 그녀의 찢그럭거리는 기계팔 소리가 간간히 들리다 녹음은 끝난다. (끝)

